

# 中國 東北지역에서 出土된 古朝鮮, 扶餘, 高句麗시대의 織物 研究

— A Study on the Textiles of the Age of Kojosun, Booyeo, and Kogooreo  
which were excavated in the East and Nort Area of China. —

중국방직대학 박사과정  
심연옥  
국민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민길자

## — 目 次 —

- I. 序 論
- II. 出土品과 研究報告書 調査
  - 1. 中國 吉林省 帽兒山에서 출토된 부여시대 직물의 纖維學的 分析
  - 2. 古朝鮮과 高句麗의 出土織物과 織機 調査
- III. 結 論
- 參考文獻
- ABSTRACT

## I. 序 論

현재 中國의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하북성, 내몽고 등 地域은 우리나라 古代織物 研究의 전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나 오늘날까지 직접적으로 研究 調査할 수 없는 한계성으로 인하여 다만 古文獻 자료에 나타나 있는 우리나라 고대의 각종 다양한 織物에 대하여 中國의 出土 遺品을 통한 예측 연구로 그쳐 있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필자들은 일차적으로 한국 고대 북방의 강역에 포괄되었던 지역 중 가장 중요한 현재의 中國 동북방 지역의 考古學的 연구 報告書와 그 織物 遺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수년간 조사 정리하던 중 古代 우리나라 古朝鮮, 高句麗 등지의 織物에 대한 遺物 報告書와 織機圖를 조사하게

되어 그 실상을 파악하여 갈 수 있었다.

더욱이 吉林省 文物考古研究所 측으로부터 90년, 93년 9월에 發掘되어 아직 조사, 연구, 보고되지 않고 있던 부여시대의 織物 遺品의 조사 분석 연구를 의뢰받게 되어 93년 11월에 출토품을 해체, 분리하여 纖維學的 분석 조사를 행하게 됨에 따라 문헌상으로만 논의되었던 부여 직물의 실체가 파악되게 되었다.

금번 조사를 통하여 부여 시대 직물의 실태 파악은 물론 우리나라 紗織物의 起源과 紗의 品種에 대한 중요한 研究 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바 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고자 한다.

## II. 出土品과 研究報告書 조사

### 1. 中國 吉林省 帽兒山에서 출토된 부여시대 織物의 纖維學的 분석

#### 1) 유품 출토 지역의 역사적 배경

금번에 조사한 직물유품은 中國 吉林省 吉林市 帽兒山墓(扶餘族屬의 墓)에서 출토된 것이다. 한 점은 90년도에 출토된 것이고 다른 다섯 점은 93년 9월에 출토된 것이다.

본 직물유품은 吉林省 文物考古研究所로부터 「吉林省 帽兒山墓地, 年代 漢, 族屬扶餘」라고 하는 書面과 함께 본 연구자에게 인도된 것이다.

帽兒山墓의 各種遺品은 各分野로 分類되어 각기 전문분야별로 조사 연구중에 있어 그 종합적 연구조사보고서가 나오면 주변자료가 밝혀져 부여인들의 생활상이 밝혀질 것이다.

부여는 古朝鮮의 한 구성 部族으로서 「後漢書」「三國志」등 문헌에 그 영역과 생활실상이 나타나 있다.

부여의 영역은 B.C.4C에서 A.D.1세기까지에 걸쳐 오늘날 중국의 遼河의 西에서 東으로 東進되었으며 松花江流域 吉林 長春과 주변지역이 있다.

帽兒山墓의 지역이 곧 상기지역내의 부여인들의 생활영역의 한곳으로서 中國의 연구자들에서 5~6세기의 集安의 묘가 고구려 묘로 공인되고 있는 것과 같이 부여인의 묘로 공인되어 있는 지역이다.

帽兒山墓 出土 織物遺品은 1993년 11월 해체·분리·분석·조사하였다.

#### 2) 出土 織物 分離

90년도에 출토한 織物은 작은 조각으로 헤어진 직물 잔편으로 이미 정리가 된 상태였다.

93년도 출토한 직물은 출토 당시 그대로의 形態로 몇 층의 직물이 짙은색의 고령토에 단단하게 엉겨 붙어 진흙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으며, 밑에는 출토 당시 바쳐 놓은 석고가 부착되어져 있었다.

크기는 약  $20 \times 15\text{cm}^2$  정도였다.

먼저 부드러운 텁붓으로 종류수를 빌라가며 진흙을 떨어 내었다. 上海 紡織科學研究院 高漢玉 선생의 의견에 따라 20% 알코올 용액에 담그었다. 직물 덩어리가 물속에서 자연적으로 각각 분리되기를 기다리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갈아주었다. 진흙물을 걸러내는 過程에서 떨어져 나오는 직물잔편은 종류수에 담그어 완전히 진흙을 제거하여 따로 보관하였다.

6일이 지나자 직물들은 모두가 하나하나 각각 분리되었고 마지막으로 여러번 깨끗한 물을 갈아가며 진흙을 말끔히 제거하였다.

분리된 직물들은 물 속에서 우선 4점의 큰 조각과 한 점의 작은 조각으로 分離하고 큰 직물들의 연결정도를 자세히 觀察하였다.

물 속에 담겨진 직물들을 직물조각별로 물 속에서 하나하나 유리판에 옮겨 일단 原來의 形態대로 잘 정리하여 천천히 들어내어 한지 위에다 옆어서 다시 조심스럽게 판을 들어내었다. 접혀진 부분은 봇에 물을 묻혀서 잘 펴서 모양을 정리하였다. 한지 위에서 거의 마른 직물은 다시 유리판위에 옮겨 두개의 유리판 사이에 끼우고 사방을 밀봉하였다.

#### 3) 分離된 織物片의 種類

##### (1) 黃色錦과 黑褐色平織綢

크기는  $27.8 \times 12\text{cm}^2$ 이며 흑갈색 평직의 부분은 두겹으로 겹쳐져 있다. 겹쳐진 부분은 錦의 끝에 대고 시접을  $0.37 - 0.4\text{cm}$ 로 절연하게 흄질하였



〈그림1〉

다. 흠질로 바느질한 부분이 명확히 남아 있는 의복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었다(그림1).

(2) (1)과 같은 형태이나 錦의 부분이 거의 떨어져나가고 시접부분에 조금 남아있다. 크기는  $34.5 \times 5.2 \text{cm}^2$ 이다(그림2).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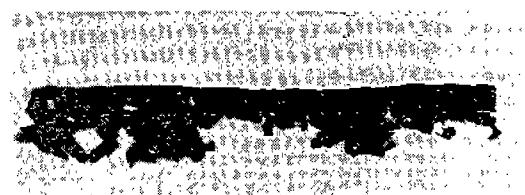
(3) (1)과 같은 형태이나 錦의 부분이 겹쳐진 흑색 평직의 부분까지 덮혀져 있다. 크기는  $21 \times 9.5 \text{cm}^2$ 이다(그림3).



〈그림3〉

#### (4) 淡褐色平織絹

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한쪽 끝에는 시접이 0.4cm가 접혀져 있다. 크기는  $23 \times 3.8 \text{cm}^2$ 이다(그림4).



〈그림4〉

#### (5) 綜黃色平織絹

세모난 나무도막을 싸고 있던 작은 조각이다. 크기는  $7.5 \times 4.5 \text{cm}^2$ 이다(그림5).



〈그림5〉

(6) 平織 方孔紗와 淡黃色平織絹으로 구성된 의복의 일부분과 黑褐色과 淡褐色 평직의 잔편이다(그림6).



〈그림6〉

#### (7) 淡黃色平織絹(90년도 출토)

破損이 아주 심했으며 아주 작은 조각으로 흩어져 있었다(그림7).



〈그림7〉

위에서 조사된 잔편들을 구성하고 있는 직물의 종류는 크게 經錦(M1 93), 黑褐色 平織絹(M2 93), 緋黃色 平織絹(M3 93), 淡褐色平織織 方孔紗(M4 93), 淡褐色 平織絹(M5 93), 淡黃色 平織絹(M6 90)<sup>1)</sup>의 6종류로 나눌 수 있다.

#### 4) 織物을 재직한 纖維의 種類와 紡績 製織技術 의 分析

위의 직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纖維의 種類와 재직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섬유의 斷面과 側面投影觀察,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IR-spectrum), X-선 回折, 電子 顯微鏡을 이용한 관찰, 30배 40배 광학현미경을 통한 직물조직의 관찰 등의 방법을 이용 조사·분석하였다. 그 실험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出土 織物 纖維의 종류 判定

###### ① 섬유의 橫斷面과 側面의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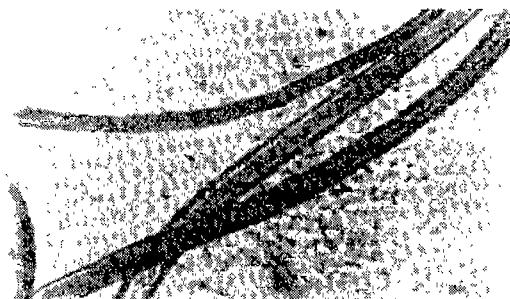
실현에 사용한 기기는 SEM(走査型電子顯微鏡)과 光學顯微鏡을 사용하였다. 실현 Simple M1, M2, M3, M4, M5, M6 섬유의 菱形面과 斜面도는 거의 類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직물 모두가 纖維임이 확실했다.

섬유의 측면은 대개 直狀(棒狀)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표면에 Sericin의 함량이 거의 없어 정련을 거친 热絲임을 알 수 있었다. 섬유의 측면은 棒狀을 제외하고도 扁平帶狀 또는 꼬여있는 리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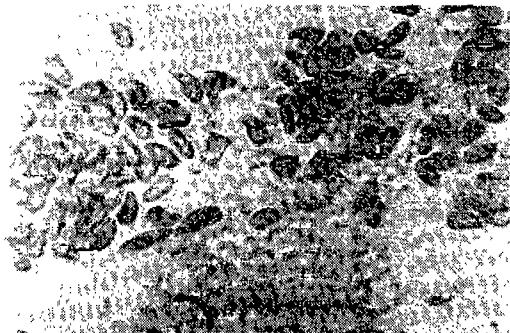
형태를 하고 있는 것도 있었으며 특히 M3의 경우는 섬유가 끊어진 부분이 뾰족하게 길게 늘어져 있고 말려있는 현상도 보인다.

섬유의 菱形面은 대부분 三角形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어떤 섬유는 길고 끝이 뾰족한 삼각형, 사각형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단면중에는 棉纖維의 단면과 같이 가운데 중공이 있는 부분이 몇 곳에 보이고, 측면도 면섬유의 측면과 같이 리본모양으로 꼬여 있는 부분이 있어 주목되나, 이것이 과연 실지로 棉纖維일 것인가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이 蠶絲의 종류는 桑蠶(家蠶)과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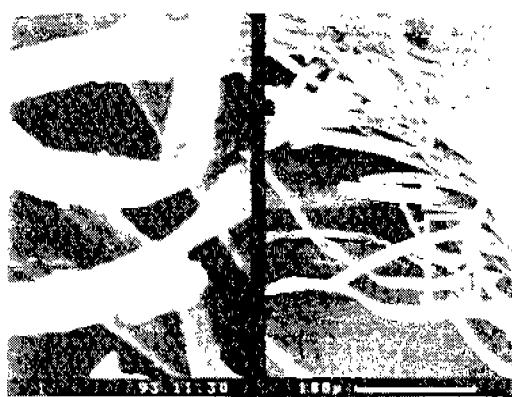


〈그림8〉 M2 纖物의 側面投影圖. ×400 光學顯微鏡 사진



〈그림9〉 M2 纖物의 斷面投影圖. ×400 光學顯微鏡 사진

1) M1 93, M2 93, M3 93, M4 93, M5 93, M6 90의 번호는 필자가 출토직물 조사과정 중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정해놓은 번호임. M은 출토지역, 1,2,3……은 직물 종류별 일련번호, 90, 93은 출토 연대를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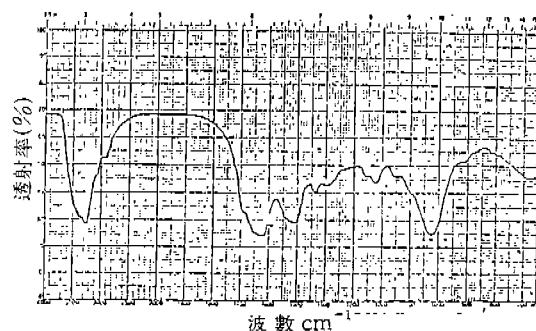
〈그림10〉 M2 織物의 纖維側面投影圖. 走査型電子顯微鏡(SEM)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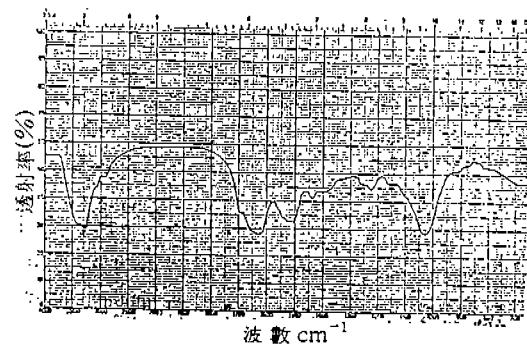
〈그림11〉 M1 織物의 纖維斷面投影圖. 走査型電子顕微鏡(SEM) 사진

② 赤外線吸收スペクトル(IR-spectrum)을 이용한 섬유종류의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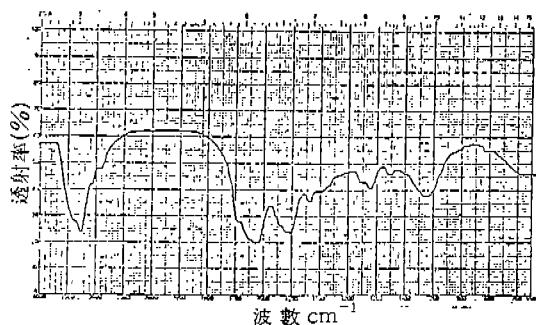
M1, M2, M3의織物을 실험한 결과 이 섬유들의 스펙트럼과 현대 桑蠶絲의 스펙트럼과는 아주 근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12〉 M1 織物의 赤外線吸收 スペクト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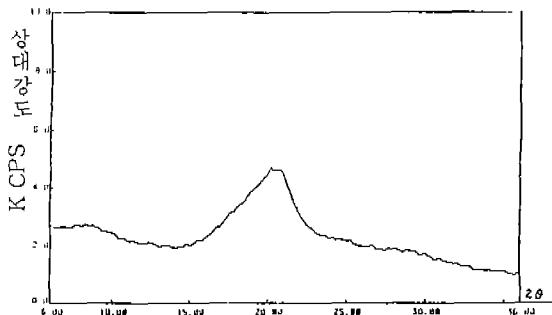
〈그림13〉 M2 織物의 赤外線吸收 スペクト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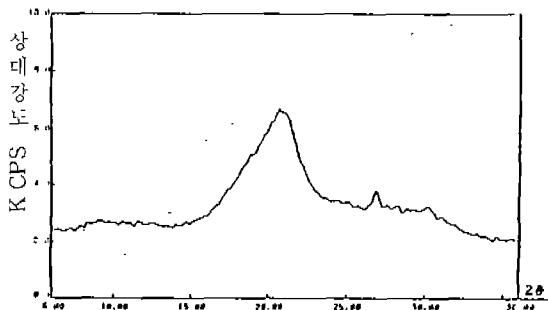
〈그림14〉 M3 織物의 赤外線吸收 スペクトル

### ③ X-線 回折실험을 이용한 섬유의 판정

실험시 電壓 45.0KV, 電流 40.0MA, 掃描速度 8.00度/分의 조건하에서 测定하였다. M1, M2 직물의 X-선 회절 強度 곡선과 현대 桑蠶絲와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 주요 회절 峰值  $2\theta=20.5^{\circ}$ ,  $20.8^{\circ}$ 로 현대桑蠶絲의 20차와 거의 일치한다. 단, M1 직물에서는  $2\theta=26.8^{\circ}$ 인 곳에서 다음 強峯이 출현하는데 이 峰은 현대野蠶絲中 제5봉에의 위치에 해당한다.



〈그림15〉 M1 織物의 X-선 回折 強度 曲선



〈그림16〉 M2 織物의 X-선 回折 強度 曲선

이상의 실험결과로 보아 俗稱 출토한 섬유는 絹纖維임이 확실하며, 蠶의 종류에 있어서 거의 桑蠶絲라고 추정이 되나 어떤부분에서는 野蠶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여 이것이 야생의 잠에서 가잠의 형태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早期桑蠶의 형태가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 (2) 紡績技術(并絲와 合撚絲)

출토 직물중 모든 직물의 경위사는 絹纖維의 單絲가 모여서 된 絲束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상 無撚이다. 1율의 사속을 이루고있는 單蠶絲數는 20~40이다. 이는 실을 용도와 규격에 맞추어 병합하여 并絲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7〉 M3 織物의 合撚絲와 絲束. ×40 光學 顯微鏡 사진

한가지 M3직물에서 특이할점은 한 줄의 경사(위사?)에 사속이 다른것의 반이 들어가고 또한 2合撚絲가 함께 직조되어 있다(그림10). 2합연사 單絲의 꼬임 방향은 둘다 Z꼬임이고, 合撚絲의 꼬임방향은 S꼬임이었다. M3의 직물조각은 작아서 이러한 2합연사가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짜넣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방적 기술상 중요한 자료이다.

이런 상당한 수준의 并絲와 撩絲기술로 보아 이것은 방주차로는 불가능하며, 이미 이 시기에 병사와 合撚絲를 만들 수 있는 선진적인 紡績具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출토직물의 絲束과 單蠶絲의 굵기 및 單纖維의 纖度는 다음과 같다.

〈表1〉 繡絲의 굵기 및 纖度

번호	絲束의 굵기 ( $\mu$ )		單繡絲의 굵기 ( $\mu$ )	單纖維의 纖度 (데니어)
	經向	緯向		
M1	272		8.66	1.12
M2	127	107	9.39	1.1
M3	170	140.9	8.99	0.72
M4			8.24	
M6	129	107.5	14.8	0.72



〈그림18〉 錦의 組織. 走査型 電子顯微鏡 사진

## (3) 織造技術

총토 織物의 종류는 錦, 한점과 絹, 紗를 포함한 平織織物 5점이다. 이들 직물의 構成特性은 다음과 같다.

〈表2〉 織物의 構成特性

번호	두께(mm)	經緯密度(율수/cm)		織物邊 폭 및 율수
		經絲	緯絲	
M1	0.406	100	20	
M2	0.114	49	48	6율 / 0.4mm
M3	0.111	48×36		
M4	0.080	36×31		
M5	0.105	56	42	6율 / 0.5mm
M6	0.110	53	45	10율 / 0.4mm

① 錦(M1 93) : 경사로 무늬를 낸 2色 經二重平組織 經錦<sup>2)</sup>이다. 경사는 2색이 일조를 이루어 번갈아 무늬를 나타낸다. 색은 이미 퇴색해서 두 가지 색을 알아보기는 힘드나 황갈색과 은갈색의 두 가지 색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며 문양은 알아볼 수 없다. 조직은 1/3, 3/1, 2/2의 변화조직이다. 경사의 밀도는 위사의 거의 5배로 경사가 치밀하고 위사가 성글기 때문에 경사방향으로 쉽게 갈라진다. 경금은 2중 직물로 M1 직물의 두께는 보통 평직 직물의 4배에 이른다.

② 平絹(M2 93) : 平織조직이다. 표면에는 광택이 별로 없고, 색은 짙은 흑갈색을 띠고 있다. 촉감이 부드럽고 가볍다. 두 겹으로 겹쳐진 부분에서는 모아헤무늬를 형성한다.

③ 平絹(M3 93) : 平織조직이다. 색은 線黃色이다. 표면은 광택이 있고 부드러우며, 실의 강도가 세서 쉽게 끊어지지 않고, 현미경으로 보면 絲束이 끊어진 부분이 거의 없이 정연하다.



〈그림19〉 M3 織物의 組織. 走査型 電子顯微鏡 사진

④ 紗(M4 93) : 가볍고 얕은 方孔 平織織物이다. 총토 직물 중 경위사 밀도가 가장 성글며, 직물의 두께도 가장 얕다.

⑤ 絹(M5 93) : 平織組織. M2의 平絹과 거의 흡사하나 색은 淡褐色을 띠고 있다. M4 紗와 함께 바느질된 일부분이다.

⑥ 絹(M6 90) : 平織組織. 淡黃色. 찬편으로 흘어져 있으며 촉감은 부드럽고 표면에는 광택이 있

2) 閔吉子, 『韓國傳統紋織物의 組織에 대한 考察』, 국립대학교 교육논총 제10집, 1990년, pp.113

다. 이 직물에서 특이할 점은 표면에 점점이 흘어진 검은색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일부는 섬유위에 부착되어 있고, 일부는 섬유 속에 흡수되어 있었다. 이 물질은 염료의 흔적으로 추정되며, 부여시대 기록에 “繪”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染料를 사용하여 직물위에 繪染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2. 古朝鮮과 高句麗의 出土織物과 織機 調査

### 1) 古朝鮮의 직물

#### (1) 毛織物

이 모직물은 中國 東北 吉林省 永吉縣星星哨에서 발굴되었다. 星星哨 石棺群은 西團山文化범위에 속하는 문화 유형으로 기원전 11세기경에 해당되는 遺跡이다. 이 모직물은 서단산 문화 유적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死者의 蒙面巾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직물의 經緯絲는 2合撚絲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單絲는 S꼬임을 사용했으며, 꼬임수는 매cm당 3~4꼬임이고, 합연사는 Z꼬임을 사용했으며 매cm당 꼬임수는 12~13꼬임이다. 組織은 平織組織이며 경위사밀도는 14~15×8~9을 /cm이다.<sup>3)</sup>

중국에서 현재 알려진 것으로 가장 이를 시기에 발굴되는 모직물은 青海의 諾木洪에서 출토된 羊毛와 야크모로 제작된 모직물이다. 이것은 星星哨에서 발굴된 고조선시대의 모직물과 거의 같은 시대의 직물이다. 諾木洪에서 발굴된 모직물의 경위사밀도는 13×6을 /cm로 우리나라 고조선에서 발굴된 모직물이 더 纖細하다.

따라서 기원전 11세기경 우리나라 古朝鮮에서는 중국보다도 더 纖細한 모직물을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2) 麻織物

星星哨 묘에서 발굴된 毛직물상면에는 一올의 麻繩이 부착되어 있었다.<sup>4)</sup>

또한 吉林 猴石山 원시사회 유적에서는 麻織物이 發見되었는데 猴石山 유적도 西團山 文化후기에 속하는 유적으로 紀元前325年경에 해당된다. 이 麻布는 청동칼에 부착되어 있던 것으로 布紋이 명확하며 경위사 밀도는 20×11을 /cm이다.<sup>5)</sup> 당시의 布幅을 50cm로 계산할 때 약 12升에 해당된다. 상당히 섬세한 직물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中國 集安 高句麗墓에서 發掘된 직물 조사

#### (1) 錦殘片

吉林 集安 長川2號墓에서 출토한 이 錦 잔편의 크기는 23cm, 經絲로 무늬를 나타냈으며, 橘黃色地상에 紺紅과 深蘭色으로 도안을 했다. 경위사 밀도는 56×32을 /cm. 錦잔편은 兩重三枚平紋經錦이라고 보고되어 있다.<sup>6)</sup>

필자가 吉林省 博物館을 방문했을 때 이 錦의 실물은 박물관과 고고연구소 층에서도 이 錦의 행방을 알지 못했으며, 長川二號墓 출토품 목록에서도 錦의 목록은 빠져있었다.

위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錦은 二重錦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색이 3색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分區法을 사용해 橘黃色과 紺色, 또 橘黃色과 深蘭을 번갈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橘黃色을 바탕으로 하고 紺紅色과 深蘭色을 번갈아 가며 무늬를 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이 錦은 二重錦이 아니라 三重錦이나 노란 경위사 밀도에 있어서도 조사자들은 가끔 혼돈을 일으켜 이종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위에 보이는 경사만을 세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종경금의

3) 趙承澤, “星星哨石棺墓織物殘片的初步探討”, 『西團山文化考古報告書』, 第二輯, 1992年, pp.89-90

4) 주 3)과 同

5) 吉林地區考古短訓班, “吉林猴石山遺跡發掘簡報”, 『考古』, 1980年, 第二期, pp.139

6) 吉林省文物工作隊, “吉林集安長川二號封土墓發掘紀要”, 『考古與文物』, 1983年, pp.26-27

경우 경사의 밀도는 표면에 보이는 밀도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锦의 경사밀도는 당연히 二重錦일 경우에는  $56 \times 2$ 가 되어 112울이 되어야 하고 三重錦일 경우라면  $56 \times 3$ 이 되어 168울이 되어야 한다. 위의 경위사밀도로는 기본상 이중금의 조작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정확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遺品이 出土된 墓 南, 北耳室의 벽화에는 織錦壁衣(錦帳)를 묘사한 '王'자 도안이 보인다.<sup>7)</sup> '王'자와 雲紋을 번갈아가며 도안을 했는데 지금은 당시에 유행한 織文字' 經錦의 도안이다.

### (2) 麻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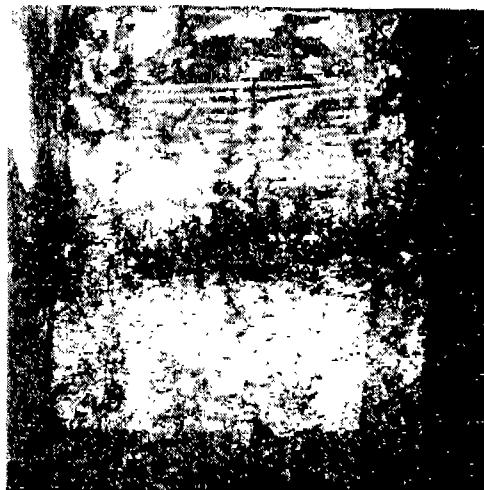
麻布 잔편 絲紅色, 경사가 치밀하고 위사가 성글다. 경위사 밀도는  $19 \times 11$ 울 / cm<sup>8)</sup>

### (3) 甲片상의 섬세한 평문직물의 흔적

평균 경위사 밀도는 대략  $31 \times 30$ 울 / cm이며 일종의 絹織物일 가능성성이 크다.<sup>9)</sup>

### 3) 고구려 벽화상의 織機圖(麻線勾一號墓 출토)<sup>10)</sup>

벽화에 회미하게 남아있는 직기도는 기대를 갖춘 斜織機이다. 경사각도는  $60^{\circ}$ 의 각을 이룬다. 직기의 앞부분에는 사람이 앉아있는 형상이 보이나 정확하지는 않고, 직기 전면에는 권포축을 장치한 흔적이 보인다. 담복의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며 직기의 중앙부에는 V자형의 끈이 내려져 있는데 이것의 용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바디를 달아 놓는 끈으로 추정된다(그림20).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함경북도 회령군 오동유적에서 원시적 베들의 바디가 출토된 것이 보고되어 있어<sup>11)</sup>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이미 바디까지 갖춘 완정한 형태의 斜織機 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0〉

## III. 結論

1990년, 1993년 9월에 發掘되어 분석 조사되지 않고 吉林省 文物 考古 研究所에 수장되어 있던 부여시대의 織物 출토품과 中國 東北 吉林省에서 발굴 조사된 古朝鮮시대의 직물과 中國 集安 高句麗墓에서 발굴 조사된 직물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여 古朝鮮, 扶餘, 高句麗 織物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1. 扶餘시대의 織物의 종류는 經錦과 平織綢, 平織方孔紗, 繪染織物이다. 三國志 古文獻상의 錦, 繪, 繪의 실상이 파악되었다고 본다.

2. 古朝鮮시대의 織物로서 동시대의 中國地域의 毛織物보다 더 섬세한 毛織物이 제작되었음이 나타났다.

麻織物은 50cm布幅으로 환산할 때 12升에 해당된다.

7) 주6)과 同

8) 吉林省博物館工作隊, “吉林集安的兩座高句麗墓”, 『考古』, 1977年, 第二期, pp.130

9) 주8)과 同

10) ‘麻線勾一號墓’의 직기도 사진은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측에서 제공함.

11) 閔吉子外4人,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織物工藝篇,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 1991年, pp.15

3. 高句麗時代의 織物로서 錦이 조사 보고되었으며 同錦이 出土된 墓 南, 北耳室『王字雲紋錦』錦帳의 벽화를 통하여 고구려 雲錦의 실상이 파악되었다.

絳紅色 麻布가 조사되어 麻染織物의 실상이 파악되었다. 더욱이 고구려의 斜織機와 바디의 존재 파악으로 先進된 機織技術 花樣의 실상이 나타났다.

### 참고문헌

- 閔吉子, “韓國傳統紋織物의 組織에 대한 考察 I –錦綺의 組織的 分類와 命名–”, 國民대학교 교육논총 제10집, 1990년
- 趙承澤, “星星哨石棺墓織物殘片的初步探討”, 『西團山文化考古報告書』, 第二輯, 1992年
- 吉林地區考古短訓班, “吉林猴石山遺跡發掘簡報”, 『考古』, 1980年, 第二期
- 吉林省文物工作隊, “吉林集安長川二號封土墓發掘紀要”, 『考古與文物』, 1983年
- 吉林省博物館文物工作隊, “吉林集安的 兩座高句麗墓”, 『考古』, 1977年, 第二期
- 閔吉子外4人,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織物工藝篇,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1年

### ABSTRACT

A Study on the Textiles of the Age of Kojosun (古朝鮮), Booyeo(扶餘) and Koguryeo(高句麗) which were excavated in the East and Nort Area of China.

The purpose of study is to grasp the actual state of the textiles of Kojosun(古朝鮮), Booyeo(扶餘) and Koguryeo(高句麗), by examining and studying about the excavated

article of the textile of the Booyeo Age which was being gathered in the Research Institute of Study of antiquities of Civilization of Gilimsung without being analyzed and examined after being excavated at September in 1990 and 1993, the textile of Kojosun Age which was excavated and examined at East and North Gilimsung in China, and the textile excavated and examined at the Kogooryeo grave at Jiban(集安), China.

1. The kinds of textiles of Booyeo Age are warp kum(經錦), plain weave silk, plain weave bang gong Sa(方孔紗), and drawn and dyed textile. It is deemed that the real state of Keum(錦), Jeung(繪) and Hwi(繪) in the old literature of Sam Guk Ji(三國志) was grasped.

2. It emerges that more detailed wool than the wool fabric of China area of the same age was manufactured as the textile of Kojosun Age. Hemp cloth corresponds to 12 Seung(升), in converting into fabric width of 50cm.

3. Keum(錦) was examined and reported as the textile of Kogooryeo Age, and the real state of Woonkeum(雲錦) of Kogooryeo Age was grasped through “Wang ja moon keum(王字紋錦)” of Keumjang(錦帳) of mural of South and North i room of the grave that the same keum was excavated. The real state of dyed textile of hemp was grasped, as the red hemp cloth was examined. Moreover, the real state of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ique to weave with machine appeared by the grasp of inclination of loom with reed of Kogooryeo.